

깨달을 때 깨달아라

본 문 잠언 1장 3-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깨달을 때 깨달아라.” 하셨습니다.

◎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.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.

◎ 오늘 <설교>로 말씀해 주고 수요일에 <잠언>으로 말씀해 줄 테니,
출판국은 두 말씀을 합쳐서 ‘한 분야의 책’ 으로 엮으면 됩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깨닫는다는 것은

<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아는 것>이 아니라

<어떤 깊은 것을 놓고 근본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>입니다.

◆ 육의 세계에서 <깊고 중요한 것들>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.

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.

◆ <영의 세계>도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.

<깊은 것>을 ‘깨달음’으로 알아야 절실히 알게 됩니다.

◆ <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>과

<깊이 깨닫고 아는 것>은

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유로 말해 주겠습니다.

▶ “사람이 아프면, 그때는 아파서 너무 고생한다.

그러니 병들지 않게 미리 관리해야 돼.” 라는 말을 듣는 것은
<지식으로 알게 된 것>입니다.

▶ 그러나 본인이 아파서 1년 동안 고생하고,

돈을 많이 들여 가며 치료해서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.

그때는 자신이 직접 겪었으니,

뇌에 못이 박히듯 충격적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.

이것이 <깨닫게 된 것>입니다.

◆ (중요) 이와 같이 <깨달아질 때>는

뇌에 못이 박히듯 충격적으로 알게 됩니다.

바로 이때 <깨달을 것>을 절실히 깨달아야지,

깨닫다 말면 ‘그 단계에서 깨닫게 될 나머지’는 사라져 버립니다.

그러면 다시 깨닫기가 아주 어렵습니다.

고로 깨달을 때 깨달으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<깨닫는 단계에 갔을 때>

그때 아예 ‘깨달을 것’을 다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

- ◆ 기도할 때도 깨달아지는데
기도하다 말면 ‘그 세계에서 깨닫게 될 나머지’ 는 못 깨닫습니다.

- ◆ (중요) 생각날 때, 그때가 ‘순간의 기회’ 입니다.

깨닫는 것도 그러합니다.

깨달을 때, 그때가 ‘순간의 기회’ 입니다.

그때 깨닫다가 말면 안 됩니다.

그때 더 깨달아서 깊이 절실히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.

- ◆ 깨닫다가 말면

어느 때는 ‘고생과 고통’ 이 오고,

어느 때는 ‘죽음’ 까지 옵니다.

깨달을 때 그 단계의 것을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

사고도 고통도 죽음도 피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.

그래서 깨달을 때 깨닫고, 제대로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.

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? (아멘!)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그렇게 귀한 말씀을 받아서 설교해 줘도
깨달으려 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.

<생각하는 것>도 ‘일’ 입니다.

어떤 일을 놓고 행해서 일을 해야 일이 되지요?

이와 같이 깨달으려고 생각해야 깨달아집니다.

- ◆ <몸>으로도 행하지만,
<생각>을 놀리지 말고 <생각>으로도 행해야 됩니다.

<행실>은 ‘실체’를 얻게 해 주지요?
<생각>도 ‘실체’를 얻게 해 줍니다.

<생각 실상 세계>입니다.

말 그대로,
<생각>하면 ‘실상’이 만들어지고 ‘실체’를 얻게 됩니다.

- ◆ <기도>도 ‘생각한 것’과 같습니다.
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‘실체’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.
<생각 실상 세계>가 된 것입니다.

- ◆ 어떤 것은 <생각>하면 ‘실체’가 되고,
어떤 것은 <몸>으로 행하면 ‘실체’가 됩니다.

* (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천국>은 ‘생각’하면 ‘영의 몸’과 일체 되어 갈 수 있습니다.

<생각>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고 목적지를 생각하고 떠나면,
<생각>이 ‘실상’이 되어
<영의 몸>과 함께 그 위치로 순간 이동합니다. <끝>

- ◆ (중요) <천국>에서는 ‘생각’하면 ‘실체’가 되는데,
어떻게 ‘천국에서 가능한 일’이 ‘땅’에서도 가능하냐고요?

<생각>은 ‘육의 뇌’에 속해 있지만
‘영의 세계 쪽의 것’이기 때문입니다.

또한 <영에 속한 혼체>가 ‘생각’과 함께 행하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<영적인 자>는 ‘생각’으로 행하며 ‘실체’를 잘 만듭니다.

<영적인 자>란,

생각이 삼위를 중심으로 삼위께 향해 있는 자입니다.

고로 <땅>에서도 ‘그 생각’을 가지고 ‘실체’를 만들며
표적으로 행합니다.

- ◆ <생각을 영적>으로 하면 ‘신령한 자, 영적인 자’입니다.
<생각을 육적>으로 하면 ‘육적인 자’입니다.

모두 <영적인 자>가 되어 ‘생각 실상 세계’를 만들면서
신같이 행해야 됩니다.

- ◆ <생각하기>에 따라 ‘운명’이 좌우되고 ‘화복’이 좌우되니,
<생각>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.

- ◆ 자신이 생각을 잘하는지, 못하는지 자기가 압니다.

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,

즉시 성령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면서 <생각>을 돌려야 됩니다.

즉시 ‘잘못된 생각’을 돌려야, 생각을 전환하기 쉽습니다.

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서는 힘들다고 주를 부정하고 나간 자들은
결국 ‘사망’에 속해서 계속 ‘생각’을 잘못합니다.

- ◆ <생각>을 의롭게 하되, 빛같이 빨리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.

<생각>은 ‘빛’ 보다 수백조 배 더 빠릅니다.

그런 <생각>을 가지고 행하며 ‘신’ 같이 살아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이제 <생각>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◆ 깨달을 때, 그때가 ‘깨달을 순간의 기회’ 입니다.
고로 깨달았을 때 ‘그 단계의 것’ 을 절실히 깨닫고 해야 됩니다.

이와 같이 생각났을 때, 그때가 ‘순간의 기회’ 이니
그때 행해야 됩니다.

<본인>의 육으로는 생각이 안 나서 아예 모릅니다.

<성령>이 깨닫도록 감동을 주시고,

<자기 혼>이나 <영>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,

<자기 자체의 뇌>에서 기억하여 기억나기도 합니다.

이때 즉시 기록하고 행해야 됩니다.

생각났을 때 안 하면 - 잊어버려서 사고가 나거나 죽기도 하고,
얻을 것을 못 얻고 끝나기도 합니다.

- ◆ (중요) 사람은 <생각>을 가지고 사니, <생각>을 집중해야 됩니다.
<생각>을 잊으면, 넓이 나갑니다. 항상 <생각>을 챙겨야 됩니다.

<생각>이 ‘자기를 지도’ 해 주고 ‘자기 생명’ 이 돼 주니,
삼위께 늘 간구하여 <생각>을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.

◆ <생각>을 늘리면, ‘희망’ 이 삭감됩니다.
<생각>을 잘못하면, ‘실패’ 이고 ‘딴 세상’ 입니다.

◆ <생각>이 ‘엔진’ 이며 ‘모터’ 입니다.
고로 <생각>이 강하고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.

◆ <생각>을 좋게 만들고,
다이아몬드같이 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야 됩니다.

◆ <생각>이 ‘죄와 불의’ 를 향하면 안 되고,
<생각>이 ‘자기중심’ 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.

◆ (중요) <생각>으로 ‘차원’ 이 높아집니다.

먼저 <생각>에서 차원을 높이려고 결심하고 계획해야
<육>도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
<삶의 차원, 휴거 차원>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<생각>에서 안 하면 <육>도 안 합니다.

◆ <생각>에 대해서 배우고 다스리고 발전시켜야 성공하고,
사탄도 이기고, 악평자도 이깁니다.

◆ <생각>에 ‘삼위를 사랑하는 마음’ 이 꼭 차서
사랑 덩이가 돼야 합니다.

그러면 <행실>이 달라지고, <휴거 차원>이 계속 높아집니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오래 믿고 살았어도

생각의 성능이 약하고 생각에서 삼위를 잊고 살면,
<차원이 낮은 단계>에 있습니다.

◆ 자나 깨나 <생각>입니다.

좋은 생각, 옳은 생각, 강한 생각, 의로운 생각,
빛같이 빠른 생각, 삼위와 일체 된 생각입니다.

◆ (중요) <주>와 <일반 사람들>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?
바로... <생각>입니다.

<주>는 일반 사람들과는 ‘생각’ 이 다릅니다.

고로 어디에 있어도 ‘하나님의 육’ 이 되어
인생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.

누구든지 ‘삼위와 일체 된 생각’ 을 하면,
<하나님의 몸>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지금까지

<깨달을 때 깨달아라. 생각났을 때 해라.> 에 대해 말씀하면서,
<생각>에 대해 말씀했습니다.

이제 마지막으로 <할 때 해라.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◆ 일할 때 중단하지 말고, 할 때 해야 됩니다.

◆ 선생이 성령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면, 말씀하시기를

“일은 할 때 해라. 그래야 집중한 김에 해진다.

내 말을 행하면, 내가 늘 돕는 격이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* (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<자연성전 야심작>을 쌓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
다섯 번이나 무너지고, 많은 위험도 있었습니다.

그래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“할 때 해야 된다.” 하고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.

고로 힘들어도 무너지면 또 쌓고, 또 쌓고, 할 때 했습니다.

- ◆ <야심작>뿐 아니라,
지금까지 <자연성전 건축>을 할 때 해서 완성했습니다.

선생이 직접 못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구상을 주면서
범석 목사와 사명자들을 세워 할 때 아예 했습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창조 목적, 휴거 역사>도 할 때 하셨습니다.

할 때 아예 구원자를 통해 ‘그에 해당되는 말씀’을 주시고,
성령의 상징체를 통해 ‘성령의 역사’를 일으켜 주셨습니다.

그래서 ‘하나님의 때’에 맞춰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뤘습니다!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 할 때 아예 해 버리십니다. <끝>

- ◆ 전도도, 관리도, 가르치는 것도, 배우는 것도, 깨닫는 것도,
각종 일도, 기도도, 노래도, 신앙도, 휴거의 삶도 할 때 하면,

이는 ‘삼위가 보실 때 합당한 일’ 이니
삼위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도우십니다.

- ◆ 할 때 해야 <생각>도 ‘더 좋은 생각’ 이 나고,
할 때 해야 <시간>도 ‘절약’ 됩니다.

할 때 안 하고 다음 기회에 하려면,
10년, 20년씩 시간이 늦어지기도 합니다.

<자연성전 야심작>을 쌓을 때도 힘들다고 안 했으면,
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‘선생의 손’ 으로는 못 했을 것입니다.

역시 할 때 해야 됩니다. 모두 깨달았습니까?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 “**깨달을 때 깨달아라.**” 하셨습니다.
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.
- ◆ 할 때 해야 그 일을 보고 듣고 행하는 데 집중이 됩니다.

지금 말씀을 쓰는 이 시간에 육적으로 제재받는 것이 많습니다.
그래도 쓸 때 계속 썼습니다.

성령님이 “**제재가 있어도 쓸 때 쓰자.**” 하셨습니다.
결국 다 썼습니다.

쓸 때 안 쓰고 미뤘으면, 말씀을 아예 못 썼습니다.

이 말씀을 <잠언>으로 내보낼까 하다가,

성령님께 물으니 “<설교>로 쓰자.” 하셔서 썼습니다.

성령이 할 때 하자고 말씀하시며 도와주셔서 다 했습니다.

◆ 모든 일은 손댄 김에 해야 됩니다.

생각났을 때 진행 중이니 해야 됩니다.

할 때 해야 됩니다. 남기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.

◆ 공부도 집중했을 때 하고, 외우는 것도 집중했을 때 해야 됩니다.

◆ 건강도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되고,
아프면 손대서 치료할 때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.

◆ 운동도 할 때 아예 해야 됩니다.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.

◆ 뱀이나 해충도 때려잡을 때 잡아 죽여야 되듯이,
<겨루는 자들>도 손을 대서 겨루기 시작했으면
계속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.

◆ 지금은 <휴거 역사의 때>입니다. 이때, 할 때 해야 됩니다.

◆ 모두 휴거의 일, 신앙의 일, 자기 할 일을 남기거나 미루지 말고
지금 할 때 하여 완성하기 바랍니다.

◆ 오늘 말씀은 <승리와 성공의 비법>입니다.
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.
그러면 성령님도 계속 역사하십니다.

◎ 여러분 모두에게 ‘선물’ 을 주고 마치겠습니다.

(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모두 같이 읽어 볼까요? (친필 사인 두 장)

(성령) 깨달을 때 깨달아라. 그때가 기회다.

생각났을 때 해라. 그 순간이 기회다.

◆ 모두 깨닫고 행하기를 바라며, 주의 평강을 빕니다. 아멘.